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

12/23 월

행 26: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골 1: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마 12: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요일 3:4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마다 불법을 일삼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 14:12-15 (Read only)

12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13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15 그러나 너는 스올로,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리라.

12/24 화

마 6: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막 3:27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없으니,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마 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 6:33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요 3:3,5

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엡 2: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2/25 수

막 4:35-41 (39)

35 그날 저녁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건너갑시다.”라고 하셨다.

36 제자들이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37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어느새 배에 물이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자,

39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4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겁을 내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으십니까?”라고 하시니,

41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요 12: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12/26 목	12/27 금	12/28 토
<p>막 9:1-2, 3-4</p> <p>1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p> <p>2 육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p> <p>3 그분의 겉옷은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p> <p>4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니,</p> <p>막 4:26-29</p> <p>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p> <p>27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 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p> <p>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다음에는 이삭에 꼭 찬 낱알입니다.</p> <p>29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수확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p>	<p>막 8:35-36, 37-38</p> <p>3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p> <p>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p> <p>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p> <p>38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p> <p>마 16:25-27</p> <p>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p> <p>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p> <p>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p> <p>롬 14: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p>	<p>마 13: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p> <p>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p> <p>마 16: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p> <p>살후 1:9 그들은 주님의 임재에서와 그분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p> <p>롬 8:18, 21</p> <p>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p> <p>21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p> <p>히 2:10</p> <p>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p>

12/29 주일

계 22: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7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찬송: 941 (英)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인 (中:745)

1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인 왕국은 그 질서 건축하는 주권의 다스림 주 하나님의 왕권 행사되는 왕국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2 왕국의 중심 보좌 하나님 좌정해 그 마음 갈망 따라 모든 것 다스려 왕이신 하나님이 머리와 주 되니 다 자기 위치에서 제 궤도 지키네.

3 하나님 다스려서 그분 뜻 행사해 그 권위 아래 주 뜻 이루어가시네 보좌로부터 주의 생명 강 흘러가 하나님 왕국 안에 축복 넘치도다.

4 그 통치 아래에서 축복을 받도다 그 주권 거스림이 죄악의 뿌리니 늘 주의 보좌 엮는 사탄 물리치고 하나님 권위 아래 살기만 원하네.

5 하나님 왕국 안에 주 확대되겠네 주 생명의 다스림 하나님 자랑 돼 주 통치 실시할 때 다 축복 받으리 주 하나님의 영광 다 나타나겠네.

6 때 차면 주 안에서 만물이 하나 돼 주 왕권 인정하고 그 통치 받으리 생명의 통치 먼저 교회가 맞볼 때 만물도 그 누림을 고대하고 원해.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 26